



# < 난 타르트가 아니야! > 독후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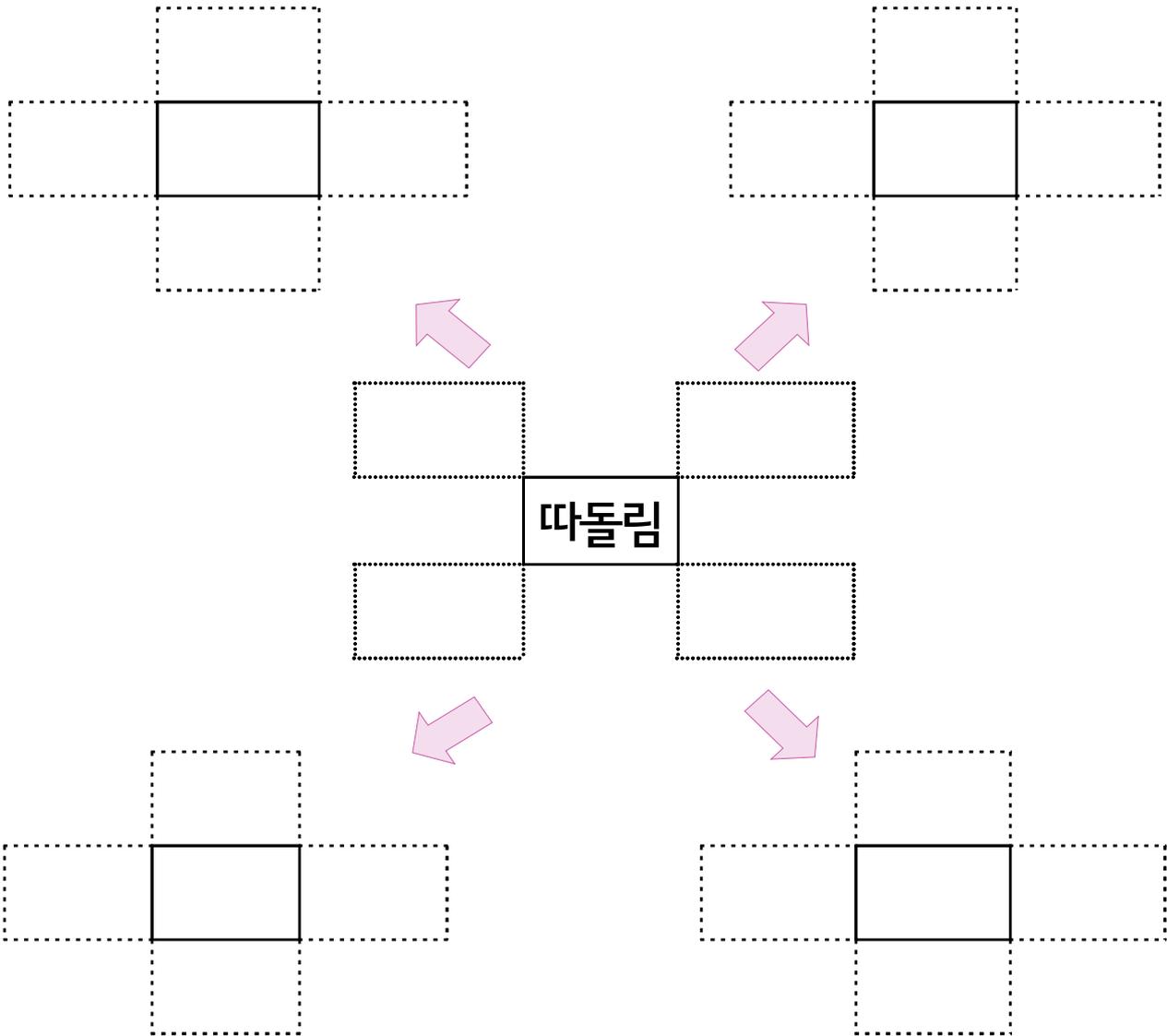


학년 반 이름

1. 책을 읽은 후 별점과 한 줄 소감을 남겨주세요.

별점	☆ ☆ ☆ ☆ ☆
이유	

2. '따돌림'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중심에 놓고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들로 나머지 칸을 채워보세요.



3. 새학기가 시작되면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일도 많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대되는 일은요? 각각 3가지씩 적어보세요.

걱정되는 일	1.
	2.
	3.

기대되는 일	1.
	2.
	3.

4. 누구나 학교생활에서 친구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무리를 짓고 왕따를 만드는 경우, 이간질이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 심하게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를 보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언제 어떤 일이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보았거나 경험했던 일	
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그때의 기분	



5. 철민이는 어릴 때부터 미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루나가 철민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나를 은근슬쩍 경계하며 주위 친구들과 함께 미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즉, 미나를 질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루나의 질투와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재는 왜 만날 너만 짜려보고 있어?”  
 철민이가 고개를 돌리다 불쑥 말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미나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루나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미나 쪽을 보고 있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자 미나도지지 않겠다는 듯 눈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미나가 쳐다보는데도 둘의 눈이 좀처럼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루나 시선은 미나 대신 철민이 뒤통수에 머물고 있었다. (40쪽)

---



---



---



---

6. 미나는 왕따를 당했다는 언니가 걱정돼서 대화하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언니는 생각보다 심하게 반응하며 화를 냅니다. 놀란 미나는 변명하듯이 말했지만 언니에게는 더 세심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언니를 위로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똑똑히 봐! 버젓이 눈앞에 사람이 있잖아. 안 보여? 안 보이냐고! 그런데 왜 투명인간 취급을 해? 방금 내가 말한 게 혼잣말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으면 혼잣말이 아닌 거야. 그건 한 사람 바보 만들려는 비열한 짓이라고! 알겠어? 난 투명인간이 아니야! 난 김미영이라고!”  
 언니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눈물이 연신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나는 그저 눈만 꿈뻑이며 서 있었다. 방금 언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언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미나가 변명하듯 말했다. (33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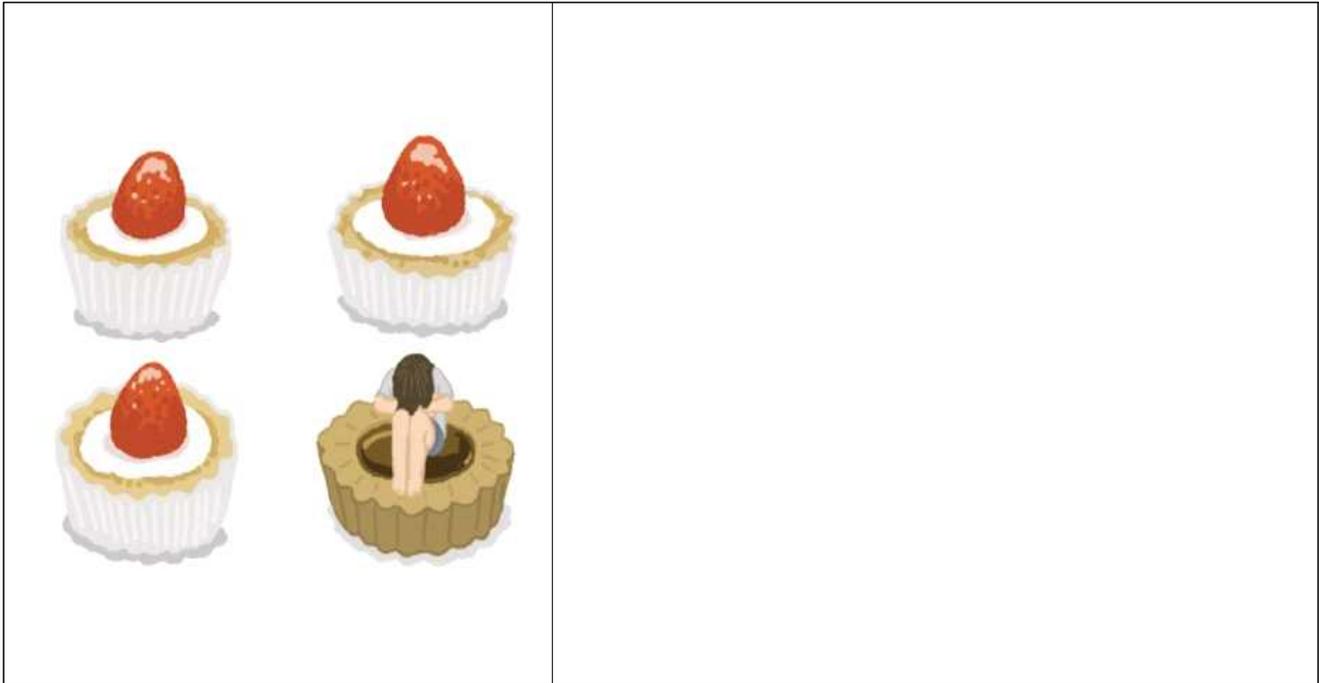


---



---

7. 미나는 딸기타르트에 둘러싸인 초코타르트가 꼭 언니처럼 쓸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달라서 쓸쓸해 보이지 않도록 다양한 타르트 그림으로 바꿔 그려 봅시다.



8.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장 노릇을 하면서 뭐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물건이나 간식을 사 주면서 주변에 여러 명을 몰고 다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 함께 다니고 싶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오늘 타르트 먹으러 갈 사람!”  
 루나가 버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사 줄게! 단, 딸기타르트는 안 돼! 하하하. 맛이 엉망진창이거든. 꼭 누구처럼!”  
 루나 주변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손을 들었다. 수미는 더 이상 타르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손을 든 아이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저 애들 중 하나이고 싶지 않아 …….’  
 언제 어디서나 대장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기 위해서 늘 맛있는 간식을 사 주고, 수시로 스티커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 환심을 사는 루나가 갑자기 너무 싫었다. (89쪽)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



---



---



---

9.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역지사지'라는 들어본 적 있나요? 자기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똑같은 일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극을 통해 미나와 루나는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되고 루나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나의 행동을 통해 어떤 걸 느꼈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역할극을 해서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과를 받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미나의 행동을 보고 느낀 점이나 배울 점	
역할극을 하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과	

10. 미나의 언니는 가족이 모두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서 가해자들에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가족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을 떠올려서 적어주세요.

언제	
어떤 일	
그때 가족들이 나를 위해 해준 일	
어떤 마음이 들었나	

